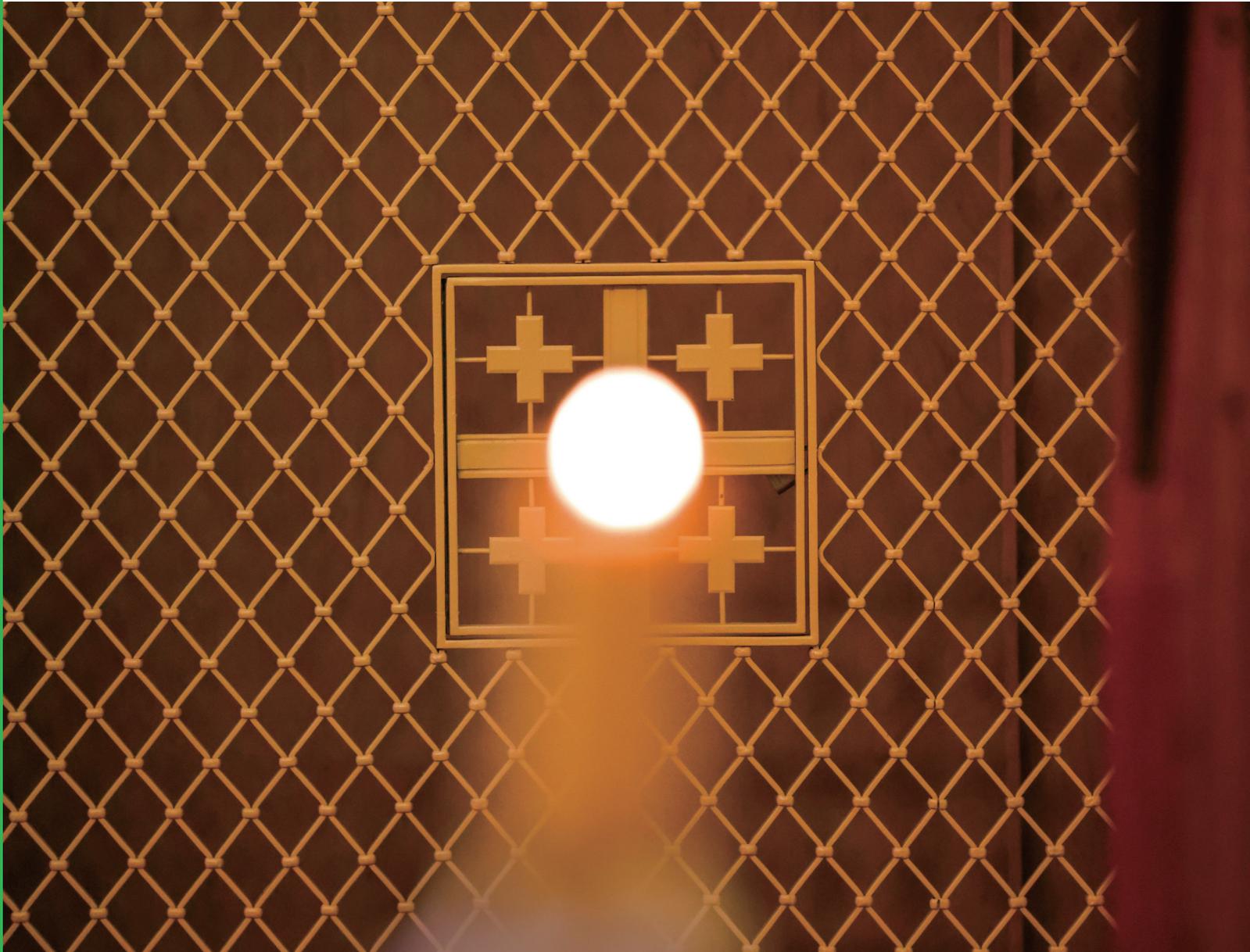




가톨릭마산

연중 제28주일
군인 주일
2024년 10월 13일
제2639호



봉쇄수녀원의 창살과 촛불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지혜 7,7-11
-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제 2 독 서 히브 4,12-13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 10,17-30 <또는 10,17-27>
- 영 성 체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최승호 메다르도 신부
군중(노동성당)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동방 가톨릭 미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방 가톨릭은 교황수위권에 따르면서 고유한 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거행된 미사는 독서와 복음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 장엄한 노래가 사용되었고 두 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미사에도 사제와 신자들 모두 열성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듯 인사와 축하를 나눴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표현이 일치되는 것은 중요한데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따라 빛어지고 갈망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집니다. 부자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 뵈지 못한 채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마르 10,18)고 하십니다. 진정 하느님으로 여겨 그렇게 불렀다면 '선하다'라는 표현을 거절하지 않으셨을 분이십니다. 이어서 부자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야 하고 악의와 사악함을 버리고 그리하여 '마른 땅'(느헤 9,11; 시편 66,6)이 드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싹트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에만 골몰해서는 하느님 나라에 속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사람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높이 솟아오르는 가벼운 날개 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의 책무를 실현하시면서 몸소 거기에 이르는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기 욕심, 탐욕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다가왔던 그는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떨어집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르 10,27)는 우리 신앙은 합당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시인 핀다로스는 '전쟁은 경험해 보지 않은 이들에게만 달콤하다'(Dulce bellum inexpertis)고 했습니다. 정권획득과 유지에 눈먼 이들로 인해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그 피해를 힘없는 이들이 감내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동방 가톨릭 전례를 함께 했던 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파병 때 도움을 주고받았던 레바논 티로와 시돈 지역 신부님들과 신자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오가는 길은 과거에도 한 길뿐이고 주님과 제자들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자기네 마을 길을 통해 오가셨다고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이슬람의 오랜 공격에도 믿음을 지켜냈다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통념적인 보편교회의 가치를 넘어 사랑으로 초대받아 미사를 함께 봉헌했던 그 장소가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피난 중이었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불안한 현지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분단의 상황에서 스스로도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느님께 평화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
하느님 나라의 사람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높이 솟아오르는
가벼운 날개 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입니다.”

본다는 것

유희선 가타리나 시인/가톨릭문인회

오후 세 시, 드문드문 빈자리가 있는 전철 안은 한산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천천히 다가오는 듯하더니 내 앞에 우뚝 멈추고 꼼작하지 않는다. 새삼 지갑을 열기에도 어색해 우물쭈물했던 것 같다. 그는 버티면서 당당했고 나는 순간, 몹시 당황했다. 짧은 순간의 이상한 대치였다. 주변에선 안 보는 척, 뚫어지게 보는 듯했다. 나는 지갑을 열어 지폐 한 장을 꺼내주었다. 그제야 상체를 크게 숙여 절을 하고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는 통로 가운데를 그대로 직진해서는 다음 칸으로 건너갔다. 그 누구에게도 내게 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속을 훤히 들키고 말다니, 궁금증이 일었다. 순식간의 일이었지만 곰곰이 되돌려보니 그냥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았다.

전동 칸 사이에서 그의 육중한 휠체어가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사람들 시선이 모여졌다 빠르게 흩어지는 순간, 그는 이미 간파했을 것이다. 대도시의 거미줄 같은 지하철을 살살이 누볐을 그는 그 방향의 프로이다. 매일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처 방법에 있어서 프로들이다.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나 같은 어정쩡한 사람도 있다. 나는 그와 시선이 부딪칠까 봐 피하면서도, 드러난 의족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돕고 싶은 마음 솟았지만 그만 타이밍을 놓쳤다. 내 작은 부스럭거림이 잠시라도 타인의 시선을 끌거나 튀는 모양새가 될 듯, 설명하기 힘든 우물쭈물 이었다. 그는 내 망설임을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서 할 일을 하라는 듯,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보는 것도, 작은 선행도 온전하지 않았다. 그저 엉겁결에 상황을 모면했을 뿐이다.

좋아하는 노래 중에 '꽃밭에서'라는 노래가 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단순한 가사 속에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비밀스레 녹아 있다. 본다는 것은 나의 관심이 머무는 자리이다. 그리고 그다음 차원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항상 작동된다. 누군가의 눈에는 꽃이 들어오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유독 돈이 보이기도 한다. 실제 "돈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잘 보기 위해, 꿰뚫어 보기 위해, 그 너머의 세계로 가기 위해 우리는 지극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시대의 우리 눈은 너무 많은 것을 본다. 혹사당하며 씹 없이 보고 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을까? 생명을 품은 여인처럼 깨끗한 눈이었으면 좋겠다. 어릴 적 다락방에서 보던 가을 하늘이어도 좋겠다. 그 길 끝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까지 가까이 닿을 것만 같다.

오늘은 제57회 군인 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68년도에, 군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 위한 '군인 주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군종신부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군인들의 영혼을 돌보며,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군종신부의 사목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주교님과 신부님,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기도를 바치시며 오천 원, 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신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젊은은 예수님과 세상을 위한 선물”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파견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차기 개최지로 한국의 서울을 지명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청년들의 신앙 부흥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리라 희망합니다.

교황님의 청년들에 대한 사랑은 지대합니다. 서울 WYD가 개최될 2027년에는 교황님께서 아흔을 넘기신 초고령의 연세가 되시겠지만, 그분은 평화의 사도로서 열정을 지니시고 한국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지난 7월 파라과이에서 열린 청소년 사도직 지도자 회의에 보내신 메시지에서 '젊음이 예수님과 세상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효는 나날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학업과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느라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 아예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에 조부모님이 계셔서 신앙을 전수하고 인간의 도리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룹니다. 신앙을 전수해 줄 곳도, 배울 곳도 점차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학교 역시 스승의 권위가 실추되어 지식 전달의 장소 정도로 여겨집니다.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가정과 학교, 종교 기능의 약화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군대 조직과 군 복무는 개인의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순기능의 시간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복무이기는 하지만, 젊은이들은 보람을 지니고 2년 남짓한 시간을 통해 육체의 건강과 인간의 법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체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종교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영적 성장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확보 등 여러 이유로, 성당에 나오거나 특히 세례성사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수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세상 끝까지 퍼뜨려라.”(이사 48,20)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이 호전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 맺음이기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부분입니다. 그분께 젊은이들을 봉헌하고 그들을 참삶의 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십사 항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미래의 주역



인 젊은 병사들이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군인을 위한 기도'를 자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심입니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자녀, 친지, 친구들입니다. 군 생활은 인생에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과 참신양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병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과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군대와 병사들을 보아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젊은이 신앙 부흥의 전환점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힘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군대는 젊은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CBCK 신자 통계에 보면 청년들의 절대다수가 군인들입니다. 20~25세 청년 영세자 인원은 10년 전 2만 7천여 명으로, 청년들의 80%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는 4천 3백여 명의 영세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교회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신자임에도 그 자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학업을 핑계로 냉담하였던 병사들도 많이 봅니다. 이들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WYD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 신앙이 없는 이들도 교회는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피를 공급하는 군종교구”

군종신부들은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미사와 성사 집전을 합니다. 일반 교구에 비해 교리교육 기간은 짧지만,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3,6)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제대 후에 각 교구, 각 본당으로 돌아갑니다. 군종교구에 남아있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종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에 젊은 피를 공급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군종신부들은 전후방 각지를 돌며 사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시편 33,5)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의지하며 힘을 내어 군 사목과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금 신자 여러분의 군종교구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안에 행복하시기를, 103명의 군종신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군인 주일에

서상범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교리교사 근속 20년 수상자 소감문



1

고성성당 유경희 모니카

주일학교 교사로 지낸지 벌써 20년이라니,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첫아이가 주일학교 유치부에 들어가면서 자모회에 소속되었고, 셋째를 낳고 직장생활을 할 때쯤 교리교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교리교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도 신앙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대에는 교리교사 5년 차로서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고, 40대에는 대표 교사직을 맡아 동료 교사들과 자모회와의 관계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조화를 이루며 화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힘을 느꼈습니다. 신앙 캠프, 성경 잔치, 성지 순례 등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커지니,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50대가 된 저는 지난 3년 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흩어졌던 주일학교 공동체를 다시 모으고 결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지지에 힘입어 동료 교사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었습니다. 함께했던 동료 교사들, 저를 신뢰했던 주일학교 아이들, 매 순간 저를 지탱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리교사로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교리교사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2코린 10,18)



2

장평성당 황영이 세실리아

안녕하세요. 20년 차 교리교사 황영이 세실리아입니다.

23년 전, 저는 교리에 대해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 배우면서 가르치면 된다는 신부님의 권유로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기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들의 웃음과 장난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과의 수업과 대화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 1년의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교리실로 돌아왔을 때, 한 4학년 남학생이 “선생님이 안 계시니 성당이 텅 비어 보였어요.”라고 말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거의 매주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교리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이해와 지원 덕분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 된 마음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본당의 동료 교리교사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수고해 주시는 교구의 모든 주일학교 교리교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이강해(스테파노) 신부
2012년 10월 19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영식(알로이시오) 신부
2019년 10월 19일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5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19일(토)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구장 서리 동정

추계주교회의

일시: 10월 14일(월)~17일(목)
장소: CBCK

푸르실로 강의

일시: 10월 18일(금)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견진성사

일시: 10월 20일(주일)
장소: 칠암동성당

교구/본당

예비신학교 지원자반 광주가톨릭대학교 방문

일시: 10월 19일 (토) 11:00

제489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10월 20일(주일) 13:00
장소: 마산교구청

청소년국 신앙강좌 6

일시: 10월 20일(주일)
장소: 마산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0월 16일(수) 19:00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제242차 혼성 푸르실로

일시: 10월 17일(목)~20일(주일) 3박 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평형 생태환경분과 위원 후반기 연수

일시: 10월 19일(토) 09:30
장소: 마산교구청

제18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시: 10월 26일(토) ~ 27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어머니이면 누구나
신청비: 120,000원(일십이만원)
계좌: 경남 207-0135-2973-03
신청: 10월 16일(수)까지 팩스 전송
문의: 사목국 가정사목부 055-249-7023

김연준 신부 특강

주제: “우리는 희망으로 삽니다.”
일시: 10월 28일(월) 12:00~16:30
미사 15:30
장소: 월영성당(마산교구)
문의: 010-2621-6034 파티마세계사도직마산교구

송구영신 피정

일시: 24년 12월 31일(화) 16:00 ~ 25년 1월 1일(수)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송구영신피정(송년미사, 해맞이, 신년 대축일 미사)
신청: 055-221-1891,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농협 351-0006-1186-53(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기 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10월 19일(토)~20일(주일)/11월 2일(토)~3일(주일)
3박4일: 10월 24일(목)~27일(주일)/11월 28일(목)~12월 1일(주일)
8박9일: 11월 14일(목)~22일(금)/12월 26일(목)~1월 3일(금)
40일: 12월 14일(토)~1월 22일(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7회 학술발표회

주제: 심리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일시: 11월 7일(목) 10:00~17: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남평)
주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광주인권평화재단
문의: 061-339-2231(연구소)/ 061-337-2181(대학본부)
참가하실 분들은 10월 31일(목)까지 유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마산교구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대상 : 2019.1.1.~2021.12.31.(만3세~만5세)

입학문의

- 살레시오성미유치원(소담동 젊음의 집): 055-297-6104
-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 055-265-0791
- 성모유치원(합천성당): 055-931-1285
- 소화유치원(문산성당): 055-761-8755
- 파티마어린이집: 055-276-2207

**가톨릭여성회관 개관 제48주년 민들레축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11:00~ 22:00

- 장소: 가톨릭여성회관 내
- 1부 우리들의 축제(한울학교, 노인대학)
 - 2부 회관 48주년 기념행사, 레스피로 중창단
 - 3부 <회관 48> 토크콘서트(가수 이경민)
 - 민들레포차, 민들레 찻집운영

교구청 직원 모집

사무처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24년 10월 21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컴퓨터 능동자(웹디자인, 웹서버 관리 가능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천로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96)
문의: 사무처 055-249-7016
▶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 구	10월 14일(월) 19:00	남성동성당	참된 믿음의 소유자	장훈철 바오로 신부 (부산 성사담당)	장훈철 바오로 신부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 **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 **120만 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 해외 성지순례 모진 ■
(김해출발) 10월 17일 베트남 다낭 5일
10월 28일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11월 29일 홍콩마카오 4일
■ 국내 성지순례 모진 ■
(창원출발) 제주-한국성지 167 모진중
10월 19일 춘천-원주교구 4일
11월 14일 인천-강릉교구 4일 12월 6일 수원교구 3일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소포몰 |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무상권적 & 친절상담
홍익철거
촌집·스레트지붕 전문철거
공장·주택·상가 등
이상한 토마스 마퀴나스
010-3913-6202



“역사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나온 길이며, 우리가 향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회원동성당 청소년분과위원장 정미애 라파엘라



“백두산 평화 순례 첫 번째 여정, ‘용정’”

용정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자, 특히 천주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신앙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정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이 단순한 역사적 유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열정과 희생이 서려 있는 장소이자, 그들이 신앙을 통해 힘을 얻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주 시인의 생각을 방문하여 비석에 새겨진 그의 시를 읽어 내려가며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려 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를 읽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운동주가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 버티고자 했던 의지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길이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운동주가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무게가 서로 겹쳐 지면서, 저도 제 삶에서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동학교와 명동촌, 일송정과 같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교육하고 전파한 신앙의 힘이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 의지를 심어주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이곳에서의 교육과 사회적 활동의 결과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겪었을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보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잇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하나 봅니다.)

단순한 중국 땅이 아닌 민족의 정기가 서린 “용정”을 다녀오며 가슴 깊이 남는 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역사와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을 되새기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꿈꾸었던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7명의 아이들과 같은 곳을 둘러보고 같은 설명을 들었지만 각자가 간직한 기억과 감정은 모두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함께 느꼈고, 가슴 깊이 오래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마주 보며 굳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주임신부님, 본당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고해 성사와 교회법 5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대사(大赦)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와 부분 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대사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을 전부 없애주는 것이고, 부분 대사는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대사를 얻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법 제994조)

즉,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얻을 수 있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사를 얻어 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사를 얻어 줄 수 없는데, 교회는 산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대사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사는 부분 대사를 수여할 권한을 가진 주교님, 추기경님들의 명시적인 수여 조건들을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합당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받을 수 있고, 상시적으로는 축복받은 성물(십자고상, 묵주, 스카폴라, 성패 등)을 경건하게 사용할 경우 부분 대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 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교황님의 권한으로, 혹은 주교회의의 요청으로 교황청 내사원의 승인을 얻어 수여 될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전대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기간에 일반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다른 선행을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한 번의 고해성사로 여러 번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의 영성체와 한 번의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한 번의 전대사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위령성월이 시작하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8번의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는 한 번만 해도 되지만 8일 동안 영성체와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를 매일 이행해야 8번의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사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이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 대리 기도로 대사를 얻어 줄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의 통공으로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 백성 사이에서 친교를 잘 드러내 주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교회의 좋은 영적 재산입니다.